

제 2장 연혁(沿革)

제 1절 고성군

시 대	군명 또는 국명 및 연대	연 혁
선사 (先史)	구석기시대 및 신석기시대	고성군에 인접한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대곡면 마진리, 지수면 청원리, 집현면 장흥리, 밀양 고례리, 사천 이금동 유적 등의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유적과 통영군의 남쪽 해안 도서지방의 옥지도를 비롯한 여러 섬의 패총 유적, 사천시 늑도 유적, 하동군 목도리 패총유적, 진주 남강유적 등지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유적의 예에서 미루어 보아 고성 지방에서도 이와 대등한 시기에 이미 인간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에서 신석기시대 패총이 발견 되었다고 하나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청동기시대	고성군 일대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고성군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인돌(支石墓) 유적과 취락(聚落) 유적지가 확인된 바 있고, 마제석검(磨製石劍) 등이 출토 수습된 바 있어 오늘날 고성군민의 기초는 이때부터 농경정착 생활을 하면서 주민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삼한 (三韓)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 (3세기경)	진(晉)나라 진수(陳壽)가 찬(撰)한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에 변한(弁韓) 12국 중의 한 나라인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이 최초의 고성(固城)의 국명(國名)이다.
	고사포국(古史浦國) (3세기경)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제2 내해 이사금(奈解尼師今) 14년(209년) 가을 7월에 바닷가(浦上)의 여덟 나라가 모의하여 가라(加羅)를 침범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 물계자전(勿稽子傳)에 내해 이사금((奈解 尼師今) 때 포상(浦上)의 여덟나라가 공모하여 아라국(阿羅國)을 치고, 그 후 3년이 지나 골포(骨浦:지금의 昌原), 칠포(漆浦:지금의 漆原), 고사포(古史浦:지금의 固城) 등 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갈화성(竭火城:지금의 울주군 凡西面)을 침공했다는 기사에서 ‘고사포국(古史浦國)’이 나타남.

	고자국 (古自國) (3세기경)	『삼국유사(三國遺事)』 물계자전(勿稽子傳)에 내해왕(奈解王) 17년(212)에 보라국(保羅國), 고자국(古自國:지금의 固城), 사물국(史勿國:지금의 泗川) 등 여덟나라가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다는 기사에서 ‘고자국(古自國)’이 나타남.
삼국 (三國) 또는 가야 (加耶)	소가야국 (小加耶國) (42년경~ 562년경)	『삼국유사(三國遺事)』 오가야조(五加耶條)에 고성(固城)은 오가야(五加耶) 중의 하나인 소가야국(小加耶國)이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의하면 후한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後漢 光武帝 十八年 壬寅) 즉 A.D 42년에 6가야(六加耶)가 같은 시기에 건국 되었다고 한다. 소가야(小加耶)는 남해안의 고성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천·진주를 포함하여 남강수계(南江水系)로 연결된 산청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왕성한 국가체제(國家體制)로 발전하여 나갔으며, 고성 송학동 고분군(松鶴洞 古墳群), 내산리 고분군(內山里 古墳群)을 비롯하여 산청 옥산리(山淸 玉山里), 중촌리(中村里) 고분군 등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소가야(小加耶) 세력의 규모와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백제, 신라, 왜와의 활발한 교류를 가지면서 가야 여러 나라와 대등한 국가로 존속되어 왔다.
	구차(久嗟) 또는 고차국 (古嵯國) (544년~562년)	『일본서기(日本書紀)』 흠명천황(欽明天皇) 5년(544)조와 23년(562)조에서는 <구차(久嗟)> 또는 <고차국(古嵯國)> 이라는 고성의 이름이 있다.
	고자국·소가야 (小加耶)의 멸망 (562년경)	낙동강(洛東江) 유역과 남해안(南海岸) 지대에서 600여년간 번창하던 고대왕국인 가야(加耶) 여러 나라들은 532년에 금관가야(金官加耶)가 562년에 대가야(大加耶)가 신라(新羅)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소가야(小加耶) 또는 고자국(古自國)도 이 무렵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통일신라 (統一新羅)	고생촌 (古生村) (591년)	진평왕(眞平王) 13년(591년) 경주(慶州) 남산(南山) 신성비(新城碑) 제4비(第四碑)에 기록되어 있는 ‘고생촌(古生村)’은 고성(固城)으로 추정된다.
	고자군 (古自郡) (685년)	신문왕(神文王) 5년(685년)에 전국을 9주(九州)로 하고 주(州) 밑에는 군(郡), 현(縣)을 두었으며 고성(固城)은 청주(靑州: 지금의 진주) 산하 <고자군(古自郡)>이 되었다.
	고성군 (固城郡) (757년)	경덕왕(景德王) 16년(757) 청주(靑州)는 강주(康州)로, 고자군(古自郡)을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改稱)하였다. 영현(領縣)이 셋인데 문화량현(蚊火良縣), 사수현(泗水縣), 상선현(尙善縣)이다.
고려 (高麗)	고주(固州) (995년)	고려(高麗) 성종(成宗) 14년(995) 고성(固城)을 주(州)로 승격하고 고주자사(固州刺史)를 두었다.
	고성현 (固城縣) (1018년)	현종(顯宗) 9년(1018) 고성현(固城縣)으로 개칭하였으며, 한때 거제(巨濟)에 속하였다.
	고주(固州) (1266년)	원종(元宗) 7년(1266)에 주(州)로 승격되었으며, 충렬왕(忠烈王) 때 남해(南海)에 합쳤다가 얼마후에 원래대로 고쳤다. 철성(鐵城)이라고도 불렀다.
	(1274년)	원(元)은 충렬왕(忠烈王) 원년(1274년) 일본을 정벌하는 1차 동정(東征)에 실패하자 합포(合浦: 지금의 마산), 김해(金海), 고성(固城)에 왜적의 침략에 대비한 전략으로 이 세곳에 진변군(鎭邊軍)을 둔적이 있으며, 그 후 수병(水兵)을 주둔시켜 군사요새지를 만들었다.
	(1350년)	충정왕 2년(1350) 2월과 6월에 왜구가 고성(固城) 등지를 침입하여 여러 군을 불살랐다.
	(1361년)	공민왕 10년(1361) 4월 병신일에 왜적이 고성(固城), 울주(蔚州), 거제(巨濟)에 침입하였다.
	(1364년)	공민왕 13년(1364) 3월 왜적이 고성(固城)과 사주(泗州)에 침입하였다.
	(1376년)	우왕 2년(1376년) 6월, 11월, 12월에 왜적이 고성(固城) 등지를 침입하여 현민을 살육하고 재물을 소각하였다.
	(1381년)	우왕 7년(1381) 7월 왜적이 고성현에 침입하였는데 남질(南秩)이 적과 싸워 8명의 수급을 베었다.
	고성현 (固城縣)	공민왕(恭愍王) 때에 현(縣)으로 강등하여 현령(縣令)을 두었으며 고성현(固城縣)이 되었다.

조선 (朝鮮)	고성현 (固城縣)	조선시대(朝鮮時代)에서도 고성현(固城縣)으로 그대로 존속하였다.
	(1425년)	1425년 12월 편찬된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고성현(固城縣)의 세대수는 531세대이고 남자는 2,885명이고, 여자는 2,833명으로 합계 5,718명이다.
	(1448년)	세종30년(1448) 고성읍성(固城邑城)을 축성하였다. 둘레는 3.524척(尺)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둘레가 285보(약1.710척)로 기록되어 있다.
	(1592년)	선조25년(1592) 5월8일 고성군 거류면 적진포해전(赤珍浦海戰)에서 왜선(倭船)13척을 격침시키고 승첩을 거두었다.
	(1592년)	선조 25년(1592) 6월 5일, 6일에 고성의 당항포(唐項浦)에 왜적(倭賊)이 침입하자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이끄는 연합함대가 적선 26척을 격파하여 제1차 당항포 대승첩을 거두었다.
	(1592년)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초야(草野)에 묻혀 있던 농민, 사림(士林), 전직관료, 승려, 천민에 이르기까지 분연히 결기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켜 조국(祖國)과 향토수호(鄕土守護)는 물론 영남 일원에 출전하여 왜적을 물리치는 데 전공(戰功)을 세웠다. 조국수호(祖國守護)의 공신(功臣)으로 등재되거나 고증(考證)의 기록(記錄)에 남아 있는 고성 출신은 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공(功)을 세우고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열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594년)	선조 27년(1594) 3월 4일, 고성의 제2차 당항포(唐項浦) 해전에서 적선 30척을 격침하고 아군 피해는 전무한 제2차 당항포 대승첩을 거두었다.
	(1597년)	선조 30년(1597) 고성읍 수남리에 고성읍성에 연접하여 고성 왜성(固城倭城)을 축성하였다.(일본왜장吉川廣家)
	(1604년)	선조(宣祖) 37년(1604)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을 거제현 오아포(烏兒浦)에서 두룡포(頭龍浦)로 이전하였다.
	(1617년)	광해군 9년(1617) 두룡포(頭龍浦)를 거제현에서 고성현으로 이관하였다.
	(1759년)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기묘년(1759년)의 고성현(固城縣)의 호구수(戶口數)는 9,435호이며, 인구는 40,034인이다. 남자는 18,613명이고 여자는 21,421명이다.

조선 (朝鮮)	(1765년)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영조 41년(1765) 고성현(固城縣)의 각 면의 행정구역은 14개면으로 되었다. 동읍내면(東邑內面), 서읍내면(西邑內面), 서리면(西里面), 하리일운면(下里一運面), 하리이운면(下里二運面), 대둔면(大屯面), 가동면(可洞面), 마암면(馬岩面), 구만면(九萬面), 회현면(會賢面), 광내일운면(光內一運面), 광내이운면(光內二運面), 도선면(道善面), 춘원면(春元面)
	(1869년)	고종(高宗) 6년(1869) 8월 고성현(固城縣)의 춘원면(春元面)에서 일어난 고성민란(固城民亂)은 향리들이 농간을 부려 호적이 문란해지므로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다. 고성의 호적 분류사건이라고도 한다.
	고성부 (固城府) (1870년)	고종(高宗) 7년(1870) 읍(邑) 치소(治所)를 통영(統營)으로 옮기고 현(縣)을 부(府)로 승격시켰으며 고성현령(固城縣令)을 부사(府使)로 승격시켰다. <고종실록 제7권, 고종 7년 7월 29일조, 고종 7년 8월 25일조>
	(1874년)	고종(高宗) 11년(1874) 통제영내로 이설한 고성읍(固城邑)의 치소(治所)를 다시 고성(固城)으로 복귀함. <고종실록 제11권, 고종 11년 4월 5일조, 고종 11년 8월 16일조>
	고성현 (固城縣) (1880년)	고종(高宗) 17년(1880) 고성부(固城府)를 다시 고성현(固城縣)으로 환원함.
	고성부 (固城府) (1884년)	고종(高宗) 21년(1884) 고성현(固城縣)을 다시 고성부(固城府)로 승격함.
	고성군 (固城郡) (1895년)	고종(高宗) 32년(1895) 칙령(勅令) 제98호로 읍(邑)의 명칭을 고성군(固城郡)이라 하고 읍(邑)의 수령(守令)을 군수(郡守)라고 함.

대한제국 (大韓帝國)	(1900년)	고종(高宗) 광무(光武) 4년(1900) 5월 16일자 칙령(勅令) 제19호로 고성군내(固城郡內)의 춘원면(春元面)에 진남군(鎭南郡)을 설치하고 도선면(道善面), 광이면(光二面), 광삼면(光三面)이 진남군(鎭南郡)에 귀속되었다.	
	(1906년)	고종(高宗) 광무(光武) 10년(1906) 9월 24일 칙령(勅令) 제49호로 진주군(晉州郡), 문선면(文善面), 남양면(南陽面), 영현면(永縣面), 영이곡면(永耳谷面), 오읍곡면(吾邑谷面), 개천면(介川面)이 고성군(固城郡)으로 소속되었다. 고성군(固城郡)은 23개 면으로 늘어났다.	
일제 강점기 (日帝 強占期)	(1912년)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129호로 고성군 남양면(南陽面)을 사천군(泗川郡)에 편입시켰다.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상남도령(慶尙南道令) 제2호로 면의 명칭 및 구역(區域)을 정할 때 고성군(固城郡)의 면은 아래와 같이 병합되었다.	
		명 칭	병 합 면
		철성면(鐵城面)	동읍내면(東邑內面)일원, 서읍내면(西邑內面)일원
		삼산면(三山面)	상서면(上西面)일원, 상남면(上南面)일원
	(1914년)	대가면(大可面)	대둔면(大屯面)일원, 가동면(可洞面)일원
		마암면(馬巖面)	동마면(東馬面)일원, 서마면(西馬面)일원
		회화면(會華面)	회현면(會賢面)일원, 화양면(華陽面)일원
		영오면(永吾面)	영이곡면(永耳谷面)일원, 오읍곡면(吾邑谷面)일원
		거류면(巨流面)	광이면(光一面)일원, 광남면(光南面)일원
		동해면(東海面)	포도면(葡萄面)일원, 광이면(光二面)일원
		하일면(下一面)	하일면(下一面)일원
		하이면(下二面)	하이면(下二面)일원
		구만면(九萬面)	구만면(九萬面)일원
		상리면(上里面)	상리면(上里面)일원
		영현면(永縣面)	영현면(永縣面)일원
		개천면(介川面)	개천면(介川面)일원

일제 강점기 (日帝 强占期)	(1918년)	철성면(鐵城面)은 고성면(固城面)이라 개칭하였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일제(日帝)의 조국강탈(祖國强奪)에 분격하여 거국적으로 쫓겨난 1919년 3월 1일 항일독립만세운동은 향토 고성에서도 분연히 일어났다. 고성의 3. 1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1919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고성읍 2회, 구만면과 회화면에서 1회, 상리면에서 1회, 영오면에서 1회, 대가면에서 1회, 모두 여섯 번이나 일어났다. 이 3. 1 운동에 참여한 향토민은 수 천명에 달했으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형을 받고 옥고를 치른 분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독립투사는 약 40여명에 달한다.
	(1938년)	부령(府令) 제197호(1938.10.1)로 고성면(固城面)이 읍(邑)으로 승격됨으로서 고성군(固城郡)은 1읍(邑) 13개면(面)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성읍(固城邑), 삼산면(三山面), 하일면(下一面), 하이면(下二面), 상리면(上里面), 대가면(大可面), 영현면(永縣面), 영오면(永吾面), 개천면(介川面), 구만면(九萬面), 회화면(會華面), 마암면(馬巖面), 동해면(東海面), 거류면(巨流面)
	(1940년)	『교남지(嶠南誌)』의 호구(戶口)란에 의하면 호구수(戶口數)는 32,202호이며 인구(人口)는 87,378인이다.
대한민국 (大韓民國)	(1966년)	경상남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고성군(固城郡)의 인구수는 131,342명이며 남자 65,477명, 여자 65,865명, 호구수는 22,141가구이다.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大統領令) 제6542호로 마암면(馬巖面) 좌련리(佐蓮里)를 개천면(介川面)으로, 동해면(東海面) 감서리(甘西里)를 거류면(巨流面)에 편입시켰다.

대한민국 (大韓民國)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삼산면(三山面) 이당리(梨堂里), 대독리(大篤里)가 고성읍(固城邑)으로, 개천면(介川面) 나선리(羅仙里) 선동(仙洞)이 구만면(九萬面) 화림리(華林里)로 편입되었다.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조례(固城郡條例) 제858호로 고성군(固城郡) 리동(里洞) 명칭 및 구역(區域) 확정(確定)에 따라 고성군의 행정(行政) 리동(里洞)은 260개(個)로 되었다.
	(1986년)	6월 30일자 고성군조례(固城郡條例) 제961호로 하일면 용태리에 가룡을, 춘암리에 맥전포를, 영오면 영산리에 낙안을 증설하여 고성군의 행정리동은 263개로 되었다.
	(1987년)	12월 24일자 고성군조례 제1002호로 삼산면 두포리에 와도를, 하일면 학림리에 임포를, 송천리에 자란을 증설하여 고성군의 행정리동은 266개로 되었다.
	(1988년)	5월 24일자 고성군조례 제1031호로 고성읍의 동(洞:성내, 서외, 수남, 동외, 송학)을 리(里)로 각각 개정하여 고성군의 행정리는 266개로 되었다.
	(1997년)	12월 31일자 고성군조례 제1537호로 고성군의 이장 정수가 조정되고 고성군의 행정리는 262개로 되었다.
	(2000년)	7월 10일자 고성군조례 제1653호로 고성군의 법정 리(里)는 199개이며, 262개 행정마을로 되었다.
	(2012년말)	2012년말 현재 행정구역은 1읍(고성읍), 13면(삼산면, 대가면, 마암면, 회화면, 영오면, 거류면, 동해면, 하일면, 하이면, 구만면, 상리면, 영현면, 개천면) 119개 법정리, 262개 행정마을, 622개 반이며 면적은 517.71km ² (경남의 4.9%), 인구수 : 56,906명 (남 28,547명, 여 28,359명), 호구수 : 25,685-세대이다.

제 2절 고성군의 변천내력과 고성읍·면의 연혁

1. 고성군(固城郡)의 변천 내력

1) 선사(先史) 및 삼한시대(三韓時代)의 고성(固城)

고성(固城)은 선사시대(先史時代) 오랜 옛날부터 선대(先代)의 조상(祖上)님들이 이곳에 자리잡고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성군의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및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부터 선사인(先史人)들이 살아왔던 많은 유적(遺蹟)이나 유물(遺物)들이 곳곳에서 발굴(發掘)되고 있으나 고성지방에서는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구체적인 유적이나 유물이 정식으로 발굴 확인된 곳은 없다. 그러나 고성지방에서도 이와 대등한 시기에 이미 인간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 들어와서는 고성지방(固城地方)에서도 선사인들이 살아왔던 지석묘(支石墓)나 석관묘(石棺墓), 마제석기(磨製石器), 무문토기(無文土器)등 많은 유적과 유물이 전군(全郡)에서 널리 발굴되고 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의 고인돌(支石墓) 유적은 군내 전면(全面)에 고루 퍼져 남기고 있으며, 오늘날 고성군의 기초는 이때부터 전군에서 농경정착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민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에 의하면 삼한시대 변진(弁辰) 12국(十二國)중의 한나라인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이 고성의 최초의 나라 이름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물계자전(勿稽子傳)에서는 포상팔국(浦上八國)의 전쟁기사에서 고사포국(古史浦國)이 나타나고 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물계자전에서는 고자국(古自國)이라는 고성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일면(下一面) 송천리(松川里) 솔섬유적과 고성읍 동외동 패총유적(固城邑東外洞貝塚遺蹟)등은 기원전후 삼한시대의 주민생활을 잘 반영하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2) 삼국시대(三國時代) 또는 가야시대(加耶時代)의 고성

『삼국유사(三國遺事)』 오가야조(五加耶條)에서는 오가야(五加耶)중의 한나라인 「소가야(小加耶)」라는 고성의 옛이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의하면 후한 광무제 건무18년 임인(後漢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 즉 A.D42년에 6가야(六加耶)가 같은 시기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소가야(小加耶)는 남해안의 고성 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천 진주를 포함하여 남강수계

(南江水系)로 연결된 산청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왕성한 국가체제(國家體制)로 발전하여 나갔으며, 고성 송학동고분군(松鶴洞古墳群), 내산리고분군(內山里古墳群)을 비롯하여 산청 옥산리(山淸玉山里), 중촌리(中村里)고분군 등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소가야 세력의 규모와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백제, 신라, 왜와의 활발한 교류를 가지면서 가야 여러나라와 대등한 국가로 존속되어 왔다.

가야(加耶)는 낙동강(洛東江)유역과 남해안(南海岸)지대에서 600여년간 번창하여 왔으며 고대 왕국인 가야 여러나라들은 532년에 금관가야(金官加耶)가, 562년에 대가야(大加耶)가 신라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소가야 또는 고자국도 이 무렵에 신라(新羅)에 병합되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는 고성의 이름이 구차(久嗟)(544년), 고차국(古嵯國)(562년)이라고 하였다.

3)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고성

신라(新羅)가 가야(加耶)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난 후 진평왕(眞平王) 13년(591) 경주(慶州) 남산(南山)에 신성(新城)을 축조하면서 남겨놓은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제4비(第四碑)에 기록되어 있는 ‘고생촌(古生村)’은 고성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이때의 고성은 고생촌이었다.

신라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는 전국을 9주(九州)로 하고 주(州)밑에 군(郡), 현(縣)을 두었으며 고성은 청주(靑州:지금의 진주) 산하 고자군(古自郡)이 되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757) 청주(靑州)는 강주(康州)가 되고 고자군은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改稱)하였다.

4)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고성

고려시대에 와서는 고려(高麗) 성종(成宗) 14년(995) 고성을 주(州)로 승격하고 고주자사(固州刺史)를 두었으며 현종(顯宗) 9년(1018) 고성현(固城縣)으로 개칭하였으며, 한때 거제(巨濟)에 속하였다. 원종(元宗) 7년(1266)에 주(州)로 승격되었으며 충렬왕(忠烈王)때에 남해(南海)에 합쳤다가 얼마후에 원래대로 고쳤다. 한때 철성(鐵城)이라고도 불렀다.

고려 공민왕(恭愍王)때에 현(縣)으로 강등하여 현령(縣令)을 두었으며 고성현(固城縣)이 되었다. 최근에 고성읍 서외리 49번지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시대및 고려시대의 “고성고읍성(固城古邑城)” (토성:土城)일부와 다량의 고려시대 명문기와(銘文瓦)가 발굴되고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 원(元)은 충렬왕(忠烈王) 원년(1274) 일본을 정벌하는 1차 동정(東征)

에 실패하자 합포(合浦: 지금의 마산), 김해(金海), 고성(固城)에 진변군(鎭邊軍)을 둔 적이 있으며 그후 수군을 주둔 시켜 군사 요새지를 만들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왔으며, 특히 충정왕2년(1350)부터 우왕 7년(1381)까지 근 반세기동안 왜구의 침입이 없는 해가 없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를 통하여 행정의 말단에 향(鄉), 부곡(部曲), 소(所)라는 특수행정 조직을 두고 있었으며 비교적 천민집단의 거주지였었다. 고성지방에 있었던 향(鄉), 부곡(部曲), 소(所)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6향(六鄉)¹⁾, 10부곡(部曲)²⁾, 및 6소(所)³⁾가 있었던 것으로 고서(古書)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향(鄉), 부곡(部曲), 소(所)는 점차 사라져 갔으며 조선시대의 말단 행정 단위인 면리제(面里制)에 흡수되고 말았다.

1) 6향(鄉)

명 칭	현과의 거리	현재의 위치
곡산향(曲山鄉)	東三十里	거류면감서리, 동해면외곡, 내곡, 장기일부
녹명향(鹿鳴鄉)	北三十里	회화면 녹명 중심 일부
어례향(魚禮鄉)	西三十里	하일면, 삼산면 장치리 일부
보령향(保寧鄉)	西四十里	하이면, 상리면, 사천군 일부
적진향(積珍鄉)	東二十里	거류면 화당리, 신용리, 당동리 일부
의선향(義宣鄉)	北四十里	구만면, 회화면, 진전면 일부

2) 10부곡(部曲)

명 칭	현과의 거리	현재의 위치
곤의부곡(坤義部曲)	北十五里	마암면 곤기중심 일부
해빈부곡(海濱部曲)	東南六十七里	동해면 장기리외 6개리
도선부곡(道善部曲)	東南二十里	통영군 도산면
진여부곡(珍餘部曲)	東二十五里	거류면 가려리, 거산, 감서, 내외곡리 일부
구허부곡(丘墟部曲)	東三十里	통영군 광도면 일부
죽림부곡(竹林部曲)	南四十里	통영군 광도면 일부
박달부곡(博達部曲)	西二十里	삼산면 판곡, 이당리
활촌부곡(活村部曲)	北二十里	마암면
쾌촌부곡(脆村部曲)	南五十里	통영군 사량면 일부
발산부곡(鉢山部曲)	北三十里	마암면 발산, 도전, 장산, 성전리

3) 6소(所)

압점은소(鴨岾銀所)

석지동소(石智銅所)

유식동소(遊息銅所)

우차포동소(亏次浦銅所)

달점다소(達岾茶所)

박도구당소(樸島句當所)

5)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고성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固城縣)으로 그대로 존속하였다. 세종30년(1448) 고성을 성내리에 고성읍성(固城邑城)을 축성하였는데 둘레는 3,524척이다.(세종실록지리지에는 285보(1700척))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장군이 이끄는 연합함대는 5월 7일 거제옥포(巨濟玉浦)에서 왜선(倭船) 26척을 격침시키고 같은날 진해 학개(鶴浦)에서 왜선 5척을 격침하고 다음날 5월 8일 경남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적진포해전(積珍浦海戰)에서 13척의 왜선을 격침하여 도합 44척의 왜선을 격침하여 제1차해전에서 대승첩(大勝捷)을 거두었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초야(草野)에 묻혀 있던 농민, 사림(士林), 승려, 천민에 이르기까지 분연히 꺾기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켜 조국(祖國)과 향토수호(鄉土守護)는 물론 영남 일원에 출전하여 왜적을 물리치는데 전공(戰功)을 세웠다. 조국수호(祖國守護)의 공신(功臣)으로 등재되거나 기록(記錄)에 남아 있는 고성출신들과 공을 세우고도 알려지지 않은 선열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592년 6월 5일에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唐項浦)에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은 연합함대를 이끌고 왜선 26척을 격침시키고 1차 당항포해전에서 대승첩을 거두었으며, 1594년 3월 4일에는 당항포해상(唐項浦海上)에서 30척의 왜선을 격침하여 제2차 당항포해전(唐項浦海戰)에서도 대승첩을 거두었다.

선조37년(1604년)에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을 거제(巨濟) 오아포에서 두룡포로(두룡포는 당시는 거제현에 있었다.) 이전하였다가 광해군(光海君) 9년(1617)에 고성현으로 이관하였다. 고종6년(1869) 8월 고성현의 춘원면(春元面)에서 호적분규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고종7년(1870)에 읍치소를 고성에서 춘원면 통제영내로 옮겨와서 사태를 수습하고 고성부(固城府)로 승격 시켰으며 고종11년(1874) 고성부의 치소를 고성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1765년) 고성현편(固城縣篇)의 방리조(坊里條)에 의하면 고성현(固城縣)은 14개면(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읍내면(東邑內面), 서읍내면(西邑內面), 상서리면(上西里面), 하리일운면(下里一運面), 하리이운면(下里二運面), 가동면(可洞面), 대둔면(大屯面), 마암면(馬岩面), 구만면(九萬面), 회현면(會賢面), 광내일운면(光內一運面), 광내이운면(光內二運面), 도선면(道善面), 춘원면(春元面)등이다. 1789년 『호구총수』 단계에서 서리면(西里面)이 늘어나 15개면이 되었다.

○ 고종32년(1895) 칙령(勅令) 제 98호로 읍(邑)의 명칭을 고성군(固城郡)이라 개칭하였다. 그 후 고성군(固城郡)은 1914년전까지는 서내면(西內面), 동내면(東內面), 상남면(上南面), 상서면(上西面), 하일면(下一面), 하이면(下二面), 대둔면(大屯面), 가동면(可

洞面), 동마면(東馬面), 서마면(西馬面), 구만면(九萬面), 회현면(會賢面), 화양면(華陽面), 광일면(光一面), 광이면(光二面), 광남면(光南面), 포도면(葡萄面), 도선면(道善面), 춘원면(春元面) 등 19개 면으로 조정되었다.

이 무렵 통제영이 폐지(1895년)됨으로써 건양 원년(1896) 개국 505년 고성지방대를 설치 병졸 400명이 주둔하였다.

6) 대한제국시대(大韓帝國時代)의 고성

대한제국 광무4년(1900) 5월 16일자 칙령(勅令) 제19호로 고성군의 행정구역이었던 춘원면(春元面)에 진남군(鎭南郡)을 설치하는 건이 분포되자 도선면(道善面), 광이면(光二面), 광삼면(光三面)을 진남군에 귀속시킴으로써, 고성군과 진남군으로 분리되었다.

고종 광무10년(1906) 9월 24일자 칙령(勅令) 제49호로 지방구역을 다시 정리할 때 진주군(晋州郡)의 문선면(文善面), 남양면(南陽面), 영현면(永縣面), 영이곡면(永耳谷面), 오읍곡면(吾邑谷面), 개천면(介川面)이 고성군으로 귀속되어 고성군은 23개면으로 늘어났다.

7)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의 고성

일제강점기인 서기 1912년 7월 1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29호에 의해서 고성군 남양면(南陽面)을 사천군(泗川郡)에 귀속시켰다. 서기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조정할 때 고성군의 22개면이 14개 면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철성면(鐵城面), 삼산면(三山面), 하일면(下一面), 하이면(下二面), 상리면(上里面), 대가면(大可面), 영현면(永縣面), 영오면(永吾面), 개천면(介川面), 구만면(九萬面), 회화면(會華面), 마암면(馬岩面), 동해면(東海面), 거류면(巨流面) 등 14개 면, 119개리로 개편되었는데 이 구역을 조정할 때 인접군의 면등이 고성군으로 폐합된 곳은 용남군(龍南郡)의 광남(光南), 광이(光二)지역과 창원군(昌原郡) 진전면(鎭田面)의 나동(羅洞), 선동(仙洞)의 2개리와 사천군(泗川郡) 수남면(洙南面)의 궁지동(宮旨洞)과 진주군(晋州郡) 금곡면(金谷面)의 덕계(德溪), 성산(省山), 석계(石界)의 각 일부가 병합되었다. 1918년 철성면을 고정면(固城面)이라 개칭되었다. 일제(日帝)의 조국강탈(祖國強奪)에 분격하여 거국적으로 궤기한 1919년 3월 1일 항일독립만세 운동은 향토 고성에서도 분연히 일어났다. 고성의 3.1독립만세 시위운동은 1919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고성을 2회, 구만면과 회화면에서 1회, 상리면에서 1회, 영오면에서 1회, 대가면에서 1회, 모두 여섯 번이나 일어났

다. 이 3.1운동에 참여한 향토민은 수천명에 달했으며, 마산보훈지청에서 조사한 항일독립운동 참여자록에 의하면 행적이 뚜렷한 고성출신 참여자는 91명이며,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국가유공자로 수훈을 받은 독립투사는 40여명에 달한다.

서기 1938년 10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197호로 고성면이 읍으로 승격됨으로서 고성군은 1읍 13개면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었다.

8) 대한민국(大韓民國) 수립 후의 고성

대한민국 수립후 서기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大統領令) 제6542호로 마암면 좌련리(佐蓮里)를 개천면으로, 동해면 감서리(甘西里)를 거류면에 각각 편입시켰다.

서기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삼산면 이당리(梨堂里), 대독리(大篤里)가 고성읍으로, 개천면 나선리(羅仙里) 선동이 구만면 화림리(華林里)로 편입되었다.

서기 1986년 6월 30일자 고성군 조례 제961호로 하일면 용태리(龍台里)에 가룡(加龍)을 춘암리(春岩里)에 맥전포(麥田浦)를 영오면 영산리에 낙안(落雁)을 증설하여 고성군의 행정 리동은 263개로 되었다.

서기 1987년 12월 24일자 고성군 조례 제1002호로 삼산면 두포리(豆布里)에 와도(臥島)를, 하일면 학림리(鶴林里)에 임포(林浦)를 송천리(松川里)에 자란(紫蘭)을 증설하여 행정 리동은 266개로 되었다.

1988년 5월 24일자 고성군 조례 제1031호로 고성읍의 동(洞:성내,서외,수남,동외,송학)을 리(里)로 각각 개정하여 고성군의 법정리는 119개리(里)로 되었다. 2000년 7월 10일자 고성군 조례 제1653호로 고성군의 법정리는 119개리이며, 262개 행정마을로 되었다.

고성군청(固城郡廳)의 소재지는 성내로 130(성내리 198번지)이며,

2014년 현재 행정구역은 1읍(고성읍) 13개면(삼산면,대가면,마암면,회화면,영오면,거류면,동해면,하일면,하이면,구만면,상리면,영현면,개천면)이며 119개 법정리 262개 행정마을, 622개반이며 면적은 517.06km² (경남의 4.9%), 인구는 56,906명(남자 28,547명, 여자 28,359명), 25,685세대이다.

2. 고성읍(固城邑)

고성읍은 기월리 지석묘(基月里支石墓), 수남동 지석묘(水南洞支石墓) 고성읍 교사리 사동(校社里社洞) 석관묘(石棺墓) 유적 등을 통하여 일찍이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부터 인간 활동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성읍은 옛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의 치소(治所)였으며 소가야 또는 고자국의 도읍지(都邑地)였다.

서기 562년 전후 신라가 취하여 고생촌(古生村)으로 하였다가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 고자군(古自郡)을 두었다가 경덕왕16년(757)에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改稱)하였다.

고려조에 들어와서 성종(成宗) 14년(995) 고성을 주(州)로 승격하고 고주자사(固州刺史)를 두었다. 현종(顯宗) 9년(1018) 고성현으로 개정하였고 한때 거제(巨濟)에 속하였고, 원종(元宗) 7년(1266)에 주로 승격하였으며, 충렬왕(忠烈王) 때에 남해에 합쳤다가 후에 원래대로 고쳤다. 철성이라고도 불렀다. 공민왕(恭愍王)때에 현으로 강등하여 현령을 두었으며 고성현이 되었다.

최근에 고성읍 서외리 49번지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의 “고성고읍성(固城古邑城)”인 성곽(토성;土城) 일부와 다량의 고려시대 명문기와(銘文瓦)가 발굴되고 있다.

고성읍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를 통하여 고생촌, 고자군, 고성군, 고성현의 치소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고성현의 치소였으며 여지도서(輿地圖書)(1765년) 고성현편(固城縣篇)의 방리조(坊里條)에 의하면 고성읍은 동읍내면(東邑內面)과 서읍내면(西邑內面)으로 되어 있으며 『호구총수』(1789년) 단계에 의하면 고성읍은 동읍내면(東邑內面)과 서읍내면(西邑內面)으로 되어 있고 동읍내면(東邑內面)은 상동문내리(上東門內里), 하동문내리(下東門內里), 동문외리(東門外里) 동북동(東北洞), 남문내리(南門內里), 남문외리(南門外里), 수문외리(水門外里), 남산하리(南山下里), 읍전포리(邑前浦里), 구선창리(舊船倉里), 아차포리(阿次浦里), 거운지리(巨雲之里), 울대리(栗垈里), 송도리(松道里), 신화동리(新化洞里), 소소리(召所里), 동읍내읍전포리(東邑內邑前浦里)등 17개 동리(洞里)이다. 서읍내면(西邑內面)은 특곡리(特谷里), 우산리(牛山里), 신성리(新城里), 양덕리(陽德里), 무량리(武良里), 계동리(桂洞里), 신기리(新基里), 무학정리(舞鶴亭里), 약촌방리(藥村坊里), 서문내리(西門內里), 상평리(常坪里), 송수동(松樹洞), 향교동(鄕校洞), 당동리(堂洞里), 중도리(中島里), 판운지리(板雲之里), 엄포리(嚴浦里), 이동(梨洞), 서읍내(西邑內), 서문내리(西門內里)등 20개 동리(洞里)이다. 조선 고종 32년(1895) 5월 26일자 칙령 제98호로 고성현이 고성군으로 개칭되었고 그 후 1914년전까지는 고성읍은 서읍내면(西邑內面)과 동읍내면(東邑內面)으로 나누어져 동읍내면은 죽동(竹洞), 평계(坪溪), 동내(東內), 동외(東外), 남내(南內), 남외(南外), 남하(南下), 정동(鼎洞), 수외(水外), 읍전(邑前), 신부(新扶), 구선(龜船), 거운지(巨雲地), 매수(梅樹), 울대(栗垈), 송도(松道)등 16개리를 관할하였고, 서읍내면은 사동(社洞), 교동(校洞), 양덕(陽德), 선동(仙洞), 장동(長洞), 울촌(栗村), 무량(武良), 내우산(內牛山), 외우산(外牛山), 특곡(特谷), 무학정(舞鶴

亭), 약재방(藥材坊)등의 12개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3월 1일자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정할 때 동읍내면(東邑內面)과 서읍내면(西邑內面)을 병합하면서 가동면(可洞面)의 유동(柳東) 일부도 병합하여 철성면(鐵城面)이라 개정하고 교사(校社), 덕선(德仙), 기월(基月), 서외(西外), 대평(大坪), 무량(武良), 우산(牛山), 송학(松鶴), 죽계(竹溪), 동외(東外), 성내(城內), 수남(水南), 신월(新月), 월평(月坪), 울대(栗岱)등의 15개리로 개편하였다.

1918년 10월 1일 철성면이 고성면으로 개칭되고 서기 1938년 10월 1일자 고성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삼산면 이당리와 대독리가 고성읍에 편입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읍은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리동명칭및 구역확정에 따라 성내동, 서외동, 수남동, 동외동, 송학동, 이당리, 기월리, 교사리, 덕선리, 대평리, 우산리, 죽계리, 울대리, 월평리, 신월리, 대독리, 무량리등 17개리동으로 정해졌다.

1988년 5월 24일자 고성군 조례 제1031호로 고성읍의 동(洞:성내,서외,수남,동외,송학)을 리(里)로 각각 개정하여 “성내리,서외리,수남리,동외리,송학리”로 하였다. 고성군의 법정리는 119개리(里)로 되었다.

고성읍사무소(固城邑事務所)는 2013년 6월 10일 고성읍 성내리 28번지에서 고성읍 송학로 93(기월리 653-7번지 일원)에 부지 5,638㎡에 이전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읍의 전체면적은 44,12km², 농경지는 15.38km², 임야 19.42km², 총가구수는 10,892호, 농가호수 2,608호 어가호수 292호이다. 인구는 26,264명이며(남자 13,202명, 여자 13,062명) 군 총가구의 42%, 군 총인구의 46.26%가 거주하여 군청소재지로서 산업(産業), 교통(交通)의 중심지이며, 마산(馬山), 통영(統營), 진주(晋州)와 부산(釜山)으로 가는 갈림길이다.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서는 사적 제119호인 송학동고분군(松鶴洞古墳群)이 있고 지방기념물 제26호인 동외동 패총(東外洞貝塚)이 있으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國家重要無形文化財) 제7호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와 고성박물관(固城博物館), 고성탈박물관이 있다.

유형문화재로서는 제122호인 교사리 삼존석불(校社里三尊石佛), 제219호인 고성향교(固城鄕校) 제475호인 고성보광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固城普光寺木造大勢至菩薩坐像)등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서 제89호 고성읍성(固城邑城), 제219호인 행촌,도촌선생유허비(杏村桃村先生遺墟碑), 고성왜성(固城倭城), 울대리고분군(栗岱里古墳群), 울대리에는 농공단지가 조성 되어 현재 12개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초등학교4개, 중학교3개, 고등학교3개가 있다.

관내 도서(島嶼)로는 대부분 무인도이며, 새섬(鳥島), 부채섬 등이 있다.

남산공원(南山公園)은 고성인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입구에는 고성

군 현령(縣令), 군수(郡守)를 지낸 분과 통영 통제사(統制使)등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빗돌을 한곳에 모아 정비하여 두었다. 공원 안에는 충혼탑(忠魂塔)과 호국 참전유공자비(護國參戰有功者碑), 고성출생으로 알려진 박목월(朴木月)시인의 시비가 있고, 고성 출신 시인(詩人)들의 시비(詩碑)가 있으며 남산 정상(南山頂上)에는 8각정(八角亭)인 남산정(南山亭)이 있다. 고서(古書)에 보면 남산은 현 남쪽 2리에 있고 옛 성터가 있다(南山在縣南二里有古城基址)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도 정상에는 삼국시대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3. 삼산면(三山面)

삼산면은 미룡리, 장치리의 지석묘(支石墓) 유적과 만림산(萬林山또는萬年山), 선사 유적지 등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및 초기철기시대부터 주민생활이 이루어졌다고 예상할 수 있다. 삼산면은 고성읍이나 인근 지역의 유적(遺蹟)등을 보아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지역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統一新羅)시대 또는 고려시(高麗時代)에는 어례향(魚禮鄉), 박달부곡(博達部曲), 번계현(樊溪縣)에 속하였다. 조선 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다. 1789년 『호구총수』 단계에서 서리면(西里面)으로 되었으며 화리치(禾里峙), 장박지리(長朴只里), 삼봉포리(三峰浦里), 송령포리(松令浦里), 두모치(豆毛峙)등 5개 처를 관할하였다. 조선 고종 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였다. 삼산면은 1914년 전까지는 상서면(上西面)과 상남면(上南面)으로 나누어졌다. 남쪽의 상남면은 장박(長朴), 화리치(禾里峙), 삼봉포(三峯浦), 미곡(米谷), 용호(龍浩), 두모치(豆毛峙), 포교(布矯), 장지(長支)의 8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쪽의 상서면은 이동(梨洞), 우곡(愚谷), 당동(堂洞), 독곡(篤谷), 대안(大安), 불암(佛岩), 판운지(板雲之), 운곡(雲谷), 병산(屏山) 9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을 병합할 때 이 지역에 있는 “갈모봉산”, “매바위산”, “봉화산”의 셋산을 상징하는 뜻으로 삼산면(三山面)이라 개칭하였다. 1914년 미룡리 390번지에 면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1926년 병산리 82번지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서기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이당리와 대독리를 고성읍에 편입시켰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병산리, 두포리, 미룡리, 삼봉리, 장치리, 판곡리 6개리로 형성되고, 1990년 다시 면사무소를 병산리에서 공룡로 2137(미룡리 265번지)로 옮겼다.

동쪽은 고성읍과 통영시 도산면, 남쪽은 통영군 산양면, 사랑면, 서쪽은 하일면, 북쪽은 상리면과 고성읍에 접해 있고 남쪽바다는 한려수도를 끼고 있다.

삼산면의 면적은 35.10km² (6.79%)이며, 가구수는 963호 농가호수는 465호, 어가호수는 226호, 인구는 1,911명(남자 957명, 여자 952명) 군청에서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12km에 위치한다. 경지면적은 5.9km², 임야 26,24km² 해안선은 45.3km에 달하고 바다는 양식어장이 많다.

취락은 자란만(紫蘭灣) 및 고성만(固城灣) 일대의 해안선과 소하천(小河川)의 경사지에 발달해 있다. 도서(島嶼)로는 삼산면 두포리의 유인도인 와도(臥島)와, 무인도인 나비섬, 문래섬, 팔섬, 소치섬, 보리섬, 윗대호섬, 아래대호섬, 상비상도, 하비상도, 목섬, 괴암섬, 토끼섬, 상두섬, 밤섬 등 15개 섬이 있다.

학교는 초등1개교, 중학교분교 1개교가 있다. 중요 문화 유적으로는 미룡리, 장치리 지석묘 유적과 만림산(만년산) 선사유적과 판곡리 망사재(望思齋)(임진왜란시 창의공신 朴愛祥 공을 모신 사당이다)와 두포리 봉수지(豆布里烽燧址) 고성 두포리군령포(豆布里軍令浦), 고성 장치리 성지(長峙里 城址) 등이 있다.

4. 하일면(下一面)

하일면은 오방리 지석묘나 학림리 지석묘 및 송천리 솔섬 석관묘(石棺墓) 유적등을 통하여 볼때 일찍이 청동기시대 및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부터 이 일대에 인간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 수 있으며, 학림리 고분군, 오방리 고분군 등으로 보아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고자국 또는 소가야국(小加耶國)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일면은 통일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에는 어례향(魚禮鄉)의 일부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다. 1789년의 『호구총수』에 의하면 고성현의 행정구역 안에 하리일운면(下里一運面)이라 하였고, 하리일운면(下里一運面)은 수다리(樹多里), 가룡포(加龍浦), 고연리(古延里), 송천리(松川里), 구소비포(舊所非浦), 오이방(梧耳芳), 사랑동변리(蛇梁東邊里), 내지포리(內池浦里), 서변리(西邊里), 공수리(公須里), 돈지포리(頓之浦里), 하일운(下一運), 사랑서변(蛇梁西邊)등 13개리를 관할하였다. 조선 고종 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였고 1914년 전까지는 하일면은 입암(立岩), 장춘(長春), 신기(新基), 오방(梧芳), 고연(古延), 학동(鶴洞), 도동(道洞), 평촌(坪村), 송천(松川), 동화(東禾), 가룡(加龍), 상화대(上禾大), 하화대(下禾大), 삼태(三台), 산탈(山脫)의 15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고성의 면을 병합할 때, 하일면(下一面)이라 했다. 관내에 춘암, 오방, 학림, 송천, 동화, 용태, 수양의 7개리로 개편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행정구역을 조정할때도 그대로 7개리

로 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6년 6월 30일자 고성군 조례 제961호로 하일면 용태리(龍台里)에 가룡을, 춘암리에 맥전포(麥田浦)를 추가하였다. 1987년 12월 24일자 고성군 조례 제1002호로 하일면 학림리에 임포(林浦)를, 송천리에 자란(紫蘭)을 추가하였다.

하일면사무소 소재지는 공룡로 979(학림리 739-8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30.98km² (5.99%) 농경지는 6.57km², 임야 21.87km² 가구수는 1,005호 농가호수 642호, 어가호수 258호, 인구는 2,001명이다. (남자 960명, 여자 1,041명) 면소재지는 군청에서 서남쪽 25.5km에 위치하며 해안선은 33.1km에 달한다. 동쪽은 삼산면, 남쪽은 바다 건너 통영시 사랑면, 서쪽은 하이면, 북쪽은 상리면에 접해 있다. 바다남쪽은 한려수도를 끼고 자란만을 형성하고 있다. 면내 문화재로서는 국가 등록 문화재 제258호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이 있으며, 기념물 제36호 오방리 지석묘, 기념물 제37호인 학림리 지석묘, 기념물 제138호인 좌이산 봉수대, 송천리의 술섬 석관묘군(石棺墓群), 기념물 제139호인 고성소를 비포성지(固城所乙非浦城址), 문화재 자료 제178호인 고성 학림리 최영덕씨 고가, 문화재 자료 제208호인 육영재(育英齋), 서비정(西扉亭) 등이 있다.

초등학교1개교, 중학교1개교가 있다. 연구시설 1개소(부경대수산과학기술센터), 취락은 학림리 일대와 자란만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해 있다. 도서(島嶼)는 유인도인 송천리 자란도(紫蘭島)와 무인도의 술섬, 만아섬, 안장섬, 죽도, 토끼섬, 육섬 등이 있다.

5. 하이면(下二面)

하이면은 석지리 지석묘, 덕명리 지석묘, 덕호리 지석묘, 월흥리 지석묘, 사곡리 지석묘 등 유적과 석지리 양촌부락에서 발견된 동검(銅劍) 유물 등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또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이 지역에 주민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석지리 고분군 등으로 보아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에는 보령향(保寧鄉)의 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다. 1765년의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고성현의 행정구역안에 한면(面)인 ‘하리이운면(下里二運面)은 관문과의 거리가 60리(下里二運面距官門六十里)’라 하였다. 1789년의 『호구총수』에 의하면 하리이운면(下里二運面)은 감고개리(監古介里), 와룡리(臥龍里), 석지리(石之里), 신덕리(新德里), 군지포(君之浦), 병말포(並末浦), 모라곡리(毛羅谷里), 신전리(新田里), 덕명리(德明里), 월아곡(月牙谷)등 10개리이다.

조선 고종 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였고 1914년 전까지

는 하리이운면(下里二運面)은 하이면(下二面)이 되었으며 하이면은 봉암(峰岩), 내원(內院), 와룡(臥龍), 봉곡(鳳谷), 감고개(檻古介), 수청(水淸), 사곡(沙谷), 군호(君湖), 신태(新德), 덕명(德明), 신흥(新興), 월치(月峙)의 12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고성군의 면을 병합할 때, 하일면의 입암 일부와 사천군 수남면(洙南面) 일부를 병합하여 리동을 정비할 때 역시 하이면(下二面)이라 하고 봉원(峰院), 와룡(臥龍), 봉현(鳳峴), 석지(石芝), 사곡(沙谷), 덕호(德湖), 덕명(德明), 월흥(月興)의 8개리로 개편하였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덕호리, 덕명리, 월흥리, 사곡리, 석지리, 와룡리, 봉현리, 봉원리 등 8개 법정리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3년 하이면 사곡리 135번지에 면사무소를 설치하고 1958년 공룡로 1(덕호리 541-4번지)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이면은 군청에서 서남쪽 31.8km 지점에 위치하며 동쪽은 하일면, 동북쪽은 상리면, 서북쪽은 사천시(삼천포사남면)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남쪽은 한려수도권으로 바다를 건너 통영시(사량면)와 남해군(창선면)을 경계로 하고 있다.

총면적은 37.84km², 농경지 7.15km², 임야 25.13km² 가구수는 1,297호에 농가호수 611호, 어가호수 83호, 총인구는 2,893명(남자 1,463명, 여자 1,430명)이 거주하고 있다.

면내의 사적 및 문화재 현황은 덕명리에 상족암군립공원이 있고 천연기념물 제411호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가 있으며, 6km의 해안선을 따라 공룡발자국화석 2000여족이 해안가 바위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공룡박물관이 있다.

군내 4대 사찰의 하나인 하이면 와룡리에 운흥사(雲興寺)가 있다. 사찰 안에는 ○ 보물 제1317호인 고성 운흥사 괘불탱및궤(雲興寺掛佛幀및櫃) ○ 보물 제1694호인 운흥사관음보살도(雲興寺觀音菩薩圖) ○ 유형문화재 제82호 운흥사대웅전(雲興寺大雄殿), ○ 유형문화재 제184호 소장경판(所藏經板), ○ 유형문화재 제356호 감로탱화(甘露幀畫), ○ 유형문화재 제357호 미타회탱화(彌陀會幀畫), ○ 유형문화재 제358호 약사탱화(藥師幀畫), ○ 문화재자료 제147호 운흥사영산전(雲興寺靈山殿), ○ 문화재자료 제288호 운흥사명부전(雲興寺冥府殿), 목조각상(木彫刻像), ○ 문화재자료 제289호 운흥사목제원패(雲興寺木製願牌) 등이 있다. 특히 문화재자료 제147호인 운흥사영산전은 임진왜란때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지휘하던 승군(僧軍) 6천여명이 왜적과 싸우기 위하여 모여던 곳이 바로 운흥사 경내에 있던 영산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해마다 음력 3월 3일에 영산제(靈山祭)를 봉행하여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5백여 승병과 의병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 기념물 제38호인 석지리지석묘(石芝里支石墓) ○ 석지리에서 밭갈이 하다가 발굴된 한국식동검(韓國式銅劍) 그 외 ○ 덕명리봉수지(烽燧址), ○ 월흥리 망림산성지(月興里망림山城址), ○ 사곡리 성지(沙谷里城址), ○ 내원사 사찰지 부도군, ○ 사곡리 황산 수정(皇山樹亭) 등이 있다.

덕호리 952번지에는 한국동남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화력발전소)(324만kw (1~6호기))가 있다.

○ 덕명리에는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이 있으며, 면내에는 초등학교 1개교가 있다.

6. 상리면(上里面)

상리면은 척변정리(滌煩亭里)의 지석묘와 무선리(武仙里) 지석묘와 무선리의 송국리형(松菊里型) 주거지(住居址)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부터 주민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망림리 유물산포지에서 삼국시대 토기와 자기편들이 확인되고 있어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삼국사기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고성군은 본래 고자군인데 경덕왕(景德王)이 고성으로 이름을 고쳐 지금도 그대로 부르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밑에 영현이 셋이 있는데 문화량현(蚊火良縣), 사수현(泗水縣), 상선현(尙善縣)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문화량현은 지금 미상(未詳)이라고 하였는데, 그 후 고성군 상리면이라고 밝힌 학자도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상리면은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자군 또는 고성군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통일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에는 보령향(保寧鄉)의 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다. 1789년 『호구총수』에 의하면 상리면(上里面)은 고곡리(古谷里), 북고곡(北古谷), 동산리(東山里), 척변정리(滌煩亭里), 오산리(烏山里), 계동리(桂洞里), 무이산(武夷山), 망림리(望林里), 구미동(龜尾洞), 부포리(夫浦里), 며량리(旃良里), 자은교(自隱橋)등 12개리이다.

조선 고종 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이 고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914년 전까지 상리면은 가슬(歌瑟), 척정(尺亭), 오산(烏山), 가동(柯洞), 봉곡(鳳谷), 고곡(古谷), 비고곡(非古谷), 조동(槽洞), 동산(東山), 선동(仙洞), 무이(武夷), 망림(望林), 구미(九尾), 자은(自隱), 부포(夫浦)의 15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고성군의 면을 병합할 때 그대로 상리면이라 하고, 동리만 개편하였다. 동리는 가슬, 오산, 고봉, 조동, 동산, 무선, 망림, 자은, 부포 9개리로 개편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고봉, 신촌, 오산, 척변정, 동산, 망림, 무선, 자은, 부포 9개리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리면은 고성읍에서 15km 서쪽에 위치하여 동쪽은 대가면, 남쪽은 삼산면, 하일면, 서쪽은 하이면, 사천시, 북쪽은 영현면과 진주시 금곡면에 접해 있다.

상리면사무소는 척변정리 1길 105(척변정리 366의 1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45.99km² , 농경지 6.97km² , 임야 34.65km² , 가구수는 871호로, 농가호수 433호, 인구는 1,788명(남자 871명, 여자 917명)이다

면내 사적 및 문화재 현황으로는 무이산(武夷山) 문수암(文殊庵)이 있다. 신라 신문왕(神文王) 8년(688)에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한 고찰로 문수암의 괴암 절벽 사이에 새겨진 문수(文殊), 보현(普賢) 두 불상(佛像)이 유명하다. 특히 주변의 절경과 한려수도(閑麗水道)의 전망이 과히 일품으로 사시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이산 문수암 경내에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확인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84-가호 고성농요(固城農謠)가 상리면 척변정리에 자리하고 있다. 상리면 척변정리 조동(槽洞)마을 깊숙한 골짜기에는 개울을 건너는 반원형의 아치식 무지개다리(폭3m, 높이10m)가 아름다운 경관과 잘 어울리게 조성되어 있다.

상리면 무선리에는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가 발굴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7. 대가면(大可面)

대가면은 유흥리 지석묘, 금산리 지석묘, 금산리 마제석검(磨製石劍)의 출토 등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는 면내 전역에서 인간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또는 삼국시대에는 송계리 고분군, 연지리 고분군 등을 미루어보아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1765)의 방리조에 의하면 대둔면(大屯面)은 관문과의 거리가 30리이며, 가동면(可洞面)은 관문과의 거리가 20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 의하면 대둔면(大屯面)은 화암리(禾巖里), 신기리(新基里), 박달리(朴達里), 척곡리(尺谷里), 장전리(場田里), 사철점리(沙鐵店里), 신전리(薪田里), 갈천리(葛川里), 종생리(宗生里)등 9개리와 가동면(可洞面)은 신기리(新基里), 유월치리(柳月峙里), 신월리(新月里), 암곡리(巖谷里), 마전리(麻田里), 세동리(細洞里), 신화동리(新化洞里), 내가동리(內可洞里)등 8개리이다.

고종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였으며 1914년 전까지는 대둔면과 가동면으로 나누어지고 대둔면은 척곡(尺谷), 관동(冠洞), 장전(場田), 송계(松溪), 신전(薪田), 갈천(葛川), 종생(宗生)의 7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가동면은 암곡(岩谷), 마전(麻田), 유동(柳洞), 신흥(新興), 삼계(三溪), 세동(細洞), 신화(新化), 연동(蓮洞), 지동(芝洞), 평동(坪洞), 양화(楊花)의 11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고성군의 면을 병합할 때 대둔면과 가동면을 합쳐 윗글자를 따서 대가면(大可面)이라 칭하게 되고 암전, 유흥, 금산, 연지, 양화, 척정, 송계, 신전, 갈천의 9개리로 개편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종전 9개리 그대로 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가면사무소는 1913년 송계리에 있다가 1948년 척곡으로 옮겼고 그후 1964년 대가로 471(유흥리 736의5번지)에 자리하였다.

동쪽은 마암면, 남쪽은 고성읍과 삼산면, 서쪽은 영현면, 북쪽은 개천면에 접하고 있다. 면적은 52.26km², 농경지 10km², 임야 36.4km², 가구수는 885호, 농가호수 680호, 인구는 1,687명(남자 828명, 여자 859명)으로 면소재지는 군청에서 6.5km에 위치한다.

면내 사적 및 문화유적(文化遺蹟) 현황은 유형문화재 제121호 양화리 석조여래좌상(楊化里石造如來坐像), 기념물 제221호 천왕점 봉수대(天王岾烽燧臺), 문화재자료 제36호 갈천서원(葛川書院), 문화재자료 제162호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固城松溪里李氏古家), 문화재자료 제207호 고성 양화리 법천사지부도군(楊化里法泉寺址浮屠群), 척정리 운곡서원(雲谷書院), 숙청사(肅淸祠), 금산리 선사유적지(琴山里先史遺蹟址), 송계리 고분군(松溪里古墳群) 등이 있다.

대가면 저수지(大可面貯水池)는 1931년 6월 착공하여 1932년 5월 31일에 준공되었으며 저수면적 92ha, 물리면적 943.5ha이며, 평균저수량 4,855.6천톤, 제방높이 14.5m, 제방길이 345m이다.

면내에는 초등학교 1개교가 있다.

8. 영현면(永縣面)

영현면은 신분리(晨盆里) 지석묘와 신분리유적(晨盆里遺蹟) 등을 통하여 볼때 청동기시대에는 이미 면내 여러곳에서 인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분리고분유적(晨盆里古墳遺蹟)을 통하여 삼한, 삼국시대에는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성군 밑에 셋 영현(領縣)중의 하나인 상선현(尙善縣)으로

본시 일선현(一善縣)인데 영선현(永善縣)이었으며 지금의 영현면이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1425)의 고성현편(固城縣編)의 속향(屬鄉)조에 의하면 영선면은 고려때 진주 관내로 소속되었으나 년대는 상세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때 진주군에 속하였다가 1906년(고종광무10년) 9월 24일 자 칙령 제49호로 다시 고성군으로 귀속되면서 영현면(永縣面)이라 개칭되고, 연동(蓮洞), 화촌(花村), 신촌(晨村), 분촌(盆村), 침촌(砦村), 점촌(店村), 봉림(鳳林), 영동(永洞), 부촌(芙村), 대촌(大村), 주촌(注村), 봉대(鳳臺), 발촌(鉢村), 추촌(楸村)의 14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고성군의 면을 병합할 때 영현면은 연화, 신분, 침점, 봉림, 영부, 대법, 봉발, 추계의 8개리로 조정 개편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28호로 다시 연화, 신분, 침점, 봉림, 영부, 대법, 봉발, 추계 8개리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쪽은 대가면, 남쪽은 상리면, 서쪽은 진주시 금곡면, 북쪽은 영오면과 개천면에 접해 있다. 영현면 소재지는 대가로 1681(침점리砦店里 354의1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32.17km², 농경지 5.26km², 임야 24.35km², 가구수는 538호 농가호수 388호, 인구는 949명(남자 433명, 여자 516명)이다.

면내 사적지 및 문화유적지 현황은 영현면 대법리 금태산 계승사(桂承寺) 경내에 천연기념물 제475호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영현면 계승사 대웅전 뒤 암반에 대법리 공룡발자국, 고성 봉발리(鳳鉢里) 제철유적(製鐵遺蹟), 고성 영부리(永芙里) 제철유적(製鐵遺蹟), 고성 신분리(晨盆里) 지석묘(支石墓) 및 입석(立石), 고성 신분리 고분군(固城晨盆里古墳群), 연화리 삼층석탑(蓮花里三層石塔), 연화리 당피산성(山城), 고성 연화리성지(蓮花里城址) 등이 있다.

면내에는 초등학교 1개교가 있다.

9. 영오면(永吾面)

영오면(永吾面)은 영오면(永吾面) 오서리(吾西里)에서 청동기시대 토기 산포지가 발견되는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일대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인간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한 또는 삼국시대에는 연당리고분군(蓮塘里古墳群)을 위시하여 오동리고분군(吾東里古墳群), 영대리고분군(永大里古墳群)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이때에는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영오면(永吾面)은 본래 진주군 지역으로서 양귀골의 이름을 따서 영이곡면(永耳谷面)이라 하였으며, 대동(大洞), 영동(永東), 영서(永西), 성곡(省谷), 동동(東洞), 성산(城山),

양산(陽山), 연향(蓮香), 본당(本塘)의 9개리를 관할하였는데, 고종 광무10년 서기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로 진주군에서 고성군에 귀속되면서 영이곡면(永耳谷面)과 오읍곡면(吾邑谷面)의 두 개 면으로 나누어졌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영이곡면(永耳谷面)과 오읍곡면(吾邑谷面)의 서동, 동동과 진주군 금곡면의 덕계동(德溪洞), 성산동(省山洞), 석계동(石界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고 영이곡면(永耳谷面)과 오읍곡면(吾邑谷面)의 윗머리 글자를 따서 영오면(永吾面)이라 개칭하고, 오서, 오동, 영대, 성곡, 영산, 양산, 연당의 7개리로 개편하였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오서, 오동, 영대, 영산, 성곡, 연당, 양산의 7개리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쪽은 진주시 금곡면, 북쪽은 진주시 일반성면, 동쪽은 개천면, 남쪽은 영현면에 접해 있다. 영오면사무소 소재지는 영대리에서 영산1길 7(영산리 240의7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22.77km² 에, 농경지 6.21km² , 임야 12.99km² 가구수는 788호이며, 농가호수 532호 어가호수 1호 인구는 1,600명(남자 788명, 여자 812명)으로 군청에서 북서쪽 28.9km에 위치한다.

영오면의 사적 및 문화유적지는 연당리고분군, 영대리고분군, 영산리고분군, 양산리고분군, 오동리고분군, 오서리유물산포지, 영산리탕큰성지 등이 있다.

면내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10. 개천면(介川面)

개천면은 예성리(禮城里) 지석묘 청광리 입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인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삼국시대에는 인근면과 그 주변의 유적 등을 참고한다면 이때에는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개천면은 본래 진주군의 지역으로서 역시 그대로 개천면이라 하였고, 거동(巨東), 거서(巨西), 청동(靑東), 청남(靑南), 구예(具禮), 덕성(德成), 상명(上明), 하명(下明), 유전(楡田), 강변(江邊), 후동(後洞), 원동(院洞), 상물(上物), 하물(下物), 봉치(鳳峙), 용궁(龍宮)의 16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고종 광무10년 서기 1906년 9월 24일자 칙령 제49호로 진주군에서 고성군에 귀속되었다.

서기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을 병합할 때도, 개천면이라 하였다.

이때 창원군(昌原郡) 진전면(鎭田面)의 라동(羅洞), 선동(仙洞)의 2개리와, 영이곡면의 성곡 일부를 병합하여, 가천(佳川), 청광(淸光), 예성(禮城), 명성(明星), 북평(北坪), 용안(龍安), 봉치(鳳峙), 나선(羅仙)의 8개리로 개편되었다.

서기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개천면의 나선리 선동이. 구만면(九萬面) 화림리로 편입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명성리(明星里), 예성리(禮城里), 좌연리(佐蓮里), 북평리(北坪里), 용안리(龍安里), 봉치리(鳳峙里), 청광리(淸光里), 라선리(羅仙里), 가천리(佳川里)의 9개리로 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쪽은 창원시 진전면, 남쪽은 구만면, 마암면, 영현면, 서쪽은 영오면, 북쪽은 영오면과 진주시 일반성면 이반성면에 접하고 있다.

개천면사무소 소재지는 청광리에서 옥천로 1278(명성리 626의1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40.45km², 농경지 6.26km², 임야 30.87km², 가구수는 626호 농가호수 448호, 인구는 1,266명(남자 609명, 여자 657명) 군청에서 면소재지까지는 북쪽으로 24.4km에 위치하고 면내 사적 및 문화유적 현황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 제495호 고성옥천사 청동북, 보물 제1693호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 및 시왕도(十王圖)가 있으며,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53호로 옥천사 자방루(玉泉寺滋芳樓), 유형문화재 제59호 옥천사 향로(玉泉寺香爐), 유형문화재 제60호 옥천사대종(玉泉寺大鍾), 유형문화재 제132호 옥천사 대웅전(玉泉寺大雄殿), 유형문화재 제299호 고성 옥천사 소장품(玉泉寺所藏品), 기념물 제140호 고성옥천사일원(固城玉泉寺一圓) 기념물 제82호 고성북령리 찰피나무, 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옥천사명부전(玉泉寺冥府殿), 문화재자료 제292호 청광리 박진사 고가, 북평리 공룡발자국, 예성리 암각화(岩刻畵), 청광리 담치령성지(牆峙嶺城址), 청광리 보령산성(寶峯山城) 등이 있다.

초등학교 1개교가 있다.

11. 구만면(九萬面)

구만면은 광덕리 지석묘(廣德里支石墓), 효락리 지석묘(孝洛里支石墓), 용와리 지석묘(龍臥里支石墓) 등을 미루어 보아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에 이미 인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또는 삼국시대에는 화림리고분군, 화림리 유물산포지 등을 미루어 보아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는 의선향(義宣鄉)의 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비고, 방면조(坊面條)에 의하면 구만은 동북으로 처음 30리, 끝은 45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지도서(輿地圖書)(1765) 김해진관 고성현(金海鎭管固城縣)의 방리조(坊里條)에 의하면 구만면은 관문과의 거리가 40리(九

萬面距官門四十里)로 되어 있다. 구만면(九萬面)은 1789년의 『호구총수』에 의하면 흥복동(興福洞), 용와동(龍臥洞), 사기점(沙器店), 저동리(亭洞里), 가위동(佳違洞), 외원당리(外院堂里), 주천리(酒泉里), 소대리(梳臺里), 낙동(樂洞), 광암리(廣巖里), 내원당리(內院堂里)등 11개리이다.

조선 고종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고 1914년 전까지 구만면은 와룡(臥龍), 용당(龍塘), 저동(亭洞), 연동(蓮洞), 내원(內院), 외원(外院), 주천(酒泉), 원평(遠坪), 효대(孝大), 락동(洛洞), 광암(廣巖), 덕암(德岩)의 12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할 때 회현면(會賢面)의 녹명(鹿鳴)의 일부를 병합하여 용와, 저리, 화림, 주평, 효락, 광덕의 6개리로 개편되고 역시 구만면이라 하였다.

서기 1983년 2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1027호로 개천면 나선리, 선동이 구만면 화림리에 편입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효락리(孝洛里), 주평리(酒坪里), 화림리(華林里), 저연리(亭蓮里), 광덕리(廣德里), 용와리(龍臥里) 6개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쪽은 회화면, 남쪽은 마암면, 서쪽은 개천면과 창원시 진전면에 접하여 있다.

※주(註) : 구만촌(九巒村)이라 함은 본면의 들이 아홉구(九)의 뚝매(巒:땃부리)를 사용해 구매 또는 구만(九巒)으로 호칭한 바 있다. 구만면사무소 소재지는 영회로 1765(효락리(孝洛里) 829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22.23km² , 농경지 6.56km² , 임야 12.88km² , 가구수는 610호, 농가호수 405호, 인구는 1,152명(남자 556명, 여자 596명)으로 군청에서 북쪽 17.8km에 위치하고 있다.

면내 사적 및 문화유적으로는 도문화재자료 제35호 도산서원(道山書院), 문화재자료 제160호 소천정(蘇川亭)이 있으며 화림리에 백자요지(白磁窯地)가 있어 고령토(高嶺土)로서 구은 그릇인 구만사발이 유명하며, 충효(忠孝)의 면으로 이름이 높다.

초등학교 1개교가 있다.

12. 회화면(會華面)

회화면은 봉동리(鳳東里) 선사유적지, 녹명리(鹿鳴里) 주거지(住居址), 어신리(語新里) 지석묘군(支石墓群)등을 미루어 보아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에 이미 인간활동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배둔리 유물산포지(背屯里遺物散布地), 봉동리 금봉산고분군(鳳東里金鳳山古墳群) 등을 미루어 보아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는 녹명향(鹿鳴鄉)의 일부에 속해 있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비고, 방면조(坊面條)에는 회현(會賢)은 동북으로 처음은 30리, 끝은 42리이다 라고 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1765) 김해진관 고성현편(金海鎭管固城縣編)의 방리조(坊里條)에서는 회현면은 관문과의 거리가 50리(會賢面距官門五十里)로 되어 있다.

1789년의 『호구총수』에 의하면 회현면(會賢面)은 어선리(漁鮮里), 산북리(山北里), 신복리(新復里), 동촌리(東村里), 자소리(資所里), 남진리(藍津里), 녹명리(鹿鳴里), 군진리(軍陳里), 배둔리(背屯里)등 10개리이다.

고종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였으며 1914년 전까지는 회현면(會賢面)과 화양면(華陽面)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회현면은 녹명(鹿鳴), 신천(新川), 월계(月溪), 남진(藍津), 자소(資所), 동촌(東村), 어선(語善), 석전(石田), 산북(山北)의 9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화양면은 배둔(背屯), 당항(堂項)을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을 병합할 때 회현면과 화양면의 배둔, 당항의 2개 동과 구만면의 덕암리 일부를 병합하고 회화면(會華面)이라 개칭하고 녹명, 삼덕, 봉동, 어신, 배둔, 당항의 6개 리동으로 개편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배둔리, 당항리, 봉동리, 어신리, 삼덕리, 녹명리 6개 리동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쪽은 창원시 진전면, 서쪽은 마암면과 구만면, 남쪽은 동해면과 고성읍에 접해 있다.

회화면사무소는 배둔로 80(배둔리 334의 7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29.65km², 농경지 6.95km², 임야 18.39km², 가구수는 1,919호, 농가호수 748호, 어가호수 63호, 인구는 4,039명(남자 2,002명, 여자 2,037명)이다

면내 사적 및 문화유적지는 도 민속자료 제16호 고성 봉동리 배씨고가(鳳東里裴氏古家), 도 유형문화재 제95호 정씨동생화회문기(鄭氏同生和會文記) (회화면 삼덕리), 회화면남진(藍津)에 봉산서원(鳳山書院), 당항리 물결자국 공룡발자국, 배둔리 공룡발자국, 회화면 어신리 공룡발자국이 있으며 삼덕리에는 (남진마을) 제철유적지(製鐵遺蹟址), 배둔리에는 배둔리 성지(背屯里城址)가 있으며 봉동리에는 청동기시대 선사유적지(先史遺蹟址)가 있다.

당항포(唐項浦)는 임진왜란 당항포대첩(壬辰倭亂唐項浦大捷) 전승의 성역지로서 승충사

(崇忠祠)와 충무공 당항포대첩기념탑(忠武公唐項浦大捷記念塔)이 있으며 당항포국민관광지(唐項浦國民觀光地)로 개발되어 세계공룡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배둔리(背屯里)에는 3.1운동 창의탑(彰義塔)이 있고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13. 마암면(馬岩面)

마암면은 신리(新里) 지석묘, 석마리 지석묘 등의 유적으로 보아 이 일대에 청동기시대에 이미 인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도전리(道田里) 용전고분군, 석마리 고분군, 화산리(禾山里) 고분군, 두호리(頭湖里) 토기산포지(土器散布地), 신리 유물산포지, 등으로 미루어보아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는 곤의부곡(坤義部曲), 활촌부곡(活村部曲)의 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여지도서(輿地圖書)(1765년) 고성현편(固城縣篇)의 방리조(坊里條)에 의하면 마암면(馬岩面)은 관문과의 거리가 40리로 되어 있으며 1789년의 『호구총수』에 의하면 두포리(頭浦里), 두락정리(頭樂亭里), 전도리(錢島里), 평산리(平山里), 전포리(田浦里), 명송정리(明松亭里), 법수동리(法水洞里), 화동리(禾東里), 화서리(禾西里), 선미동리(船尾洞里), 도동리(道洞里), 용전리(龍田里), 시동리(柿洞里), 장산리(樟山里), 발산리(鉢山里), 성전리(聖田里), 축치리(柵峙里), 좌월곡리(佐月谷里), 신리(新里), 어은동리(漁隱洞里)등 20개리이다.

고종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였으며 마암면(馬岩面)은 1914년 전까지는 동마면(東馬面)과 서마면(西馬面)의 두 개의 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서마면은 좌련(佐蓮), 신평(新坪), 좌이(佐耳), 석마(石馬), 감동(甘洞), 신리(新里), 서장(西章), 동장(東章), 선미(船尾), 성전(聖田), 용전(龍田)의 11개 리동을 관할하였고, 동마면은 서화(西禾), 동화(東禾), 법화(法禾), 도동(道洞), 전포(田浦), 보대(寶大), 평부(平釜), 두락정(豆洛亭), 곤기(崑基), 동정(東井)의 10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을 병합할 때 동마면과 서마면을 병합하면서 화양면의 배둔 일부를 편입시켜, 마암면(馬岩面)이라 개칭하였다.

이로써 마암면은 좌련, 석마, 신리, 장산, 성전, 도전, 화산, 보전, 삼락, 두호의 10개 동리로 개편되었다.

서기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6542호로 마암면 좌련리를 개천면에 편입시켰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두호리, 삼락리, 보전리, 화산리, 도전리, 성전리, 신리, 석마리, 장산리 9개 동리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쪽은 회화면, 동해면, 남쪽은 거류면, 고성읍, 서쪽은 대가면, 개천면, 북쪽은 구만면에 접해 있다.

마암면사무소 소재지는 옥천로 247(도전리 670의 8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33.70km² (6.51%), 농경지 8.93km², 임야 20.12km², 총가구수는 935호 농가호수 631호, 어가호수 10호, 총인구는 2,008명(남자 993명, 여자 1,015명)이며 면내 사적지 및 문화유적지는 도 민속자료 제1호 석마리 석마(石馬), 도 기념물 제86호 고성장산숲, 문화재자료 제34호 수림서원(繡林書院), 문화재자료 제37호 도연서원(道淵書院), 문화재자료 제38호 위계서원(葦溪書院), 문화재자료 제115호 고성장산리 허씨고가(章山里許氏古家), 두호리 덕산서원(頭湖里德山書院), 성전리성지(聖田里城址), 화산리패총(禾山里貝塚), 화산리성지(禾山里城址), 화산리순정문(禾山里純貞門) 등이 있다.

초등학교 1개교가 있다.

14. 동해면(東海面)

동해면은 내산리 지석묘(內山里支石墓), 양촌리 지석묘(楊村里支石墓) 등의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이미 인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내산리고분군(內山里古墳群), 양촌리고분군(楊村里古墳群), 내곡리고분군(內谷里古墳群), 철마산성(鐵馬山城), 양촌리성지(楊村里城址) 등으로 이루어져 보아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유적으로 외곡리유물산포지(外曲里遺物散布地)와 장기리 제철유적지(章基里製鐵遺蹟址)가 있고, 고려시대 군마(軍馬)를 길렀던 내곡리목장성지(內谷里牧場城址)가 있으며, 해빈부곡(海濱部曲)의 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고종32년(1895) 칙령 제98호로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였으며 1914년 전까지는 포도면(葡萄面)과 광이면(光二面)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포도면은 상장(上壯), 중장(中壯), 하장(下壯), 가룡(駕龍), 매정(梅亭), 범주(凡注), 검포(檢浦), 장기(章基), 용흥(龍興), 전도(錢島), 내신(內新), 대천(大川), 좌부천(佐夫川)의 13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광이면은 감동(甘洞), 서림(西林), 동림(東林), 외곡(外谷), 내곡(內谷), 선동(仙洞)의 6개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을 병합할 때 이 두 개면을 합

쳐 동쪽바다에 있다하여 동해면(東海面)이라 개칭되고 감서(甘西), 봉암(鳳岩), 외곡(外谷), 내곡(內谷), 장좌(壯佐), 용정(龍亭), 양촌(楊村), 장기(章基), 내산(內山), 외산(外山)의 10개 동리로 개편되었다.

서기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6542호로 감서리를 거류면으로 넘겨주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장기리, 양촌리, 외산리, 내산리, 용정리, 장좌리, 봉암리, 외곡리, 내곡리 9개리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쪽은 바다, 남쪽은 당동만과 거류면의 당동, 서쪽은 거류면, 북쪽은 바다 건너 회화면과 창원시 진전면에 접해 있다.

동해면사무소는 장기3길 100(장기리 346의 2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53.88km², 농경지 9.19km², 임야 38.91km², 가구수는 1,817호, 농가호수 969호, 어가호수 617호, 인구수는 3,689명(남자 1,912명, 여자 1,777명)이며 군청에서 북동쪽으로 16.9km에 위치하고, 면내 사적 및 문화유적지는 사적 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內山里古墳群), 기념물 제236호 곡산봉수지(曲山烽臺址), 문화재자료 제39호 호암사(虎岵祠), 문화재자료 제91호 철마산성(鐵馬山城), 문화재자료 제373호 철산정사(鐵山精舍), 고성양촌리성지(固城陽村里城址), 동해면 외곡리에 국산서원(菊山書院), 고성봉암리 공룡발자국, 고성장좌리 공룡발자국, 공자(孔子)의 영상(影像)을 모신 고성이산리 문선왕영전(固城外山里文宣王影殿), 내곡리, 봉암리, 외곡리에 걸쳐 약 6km에 달하는 목장성지(牧場城址)가 있다.

동해면은 내산리, 장좌리, 양촌, 용정지구에 조선해양산업특구(造船海洋産業特區)가 조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15. 거류면(巨流面)

거류면은 가려리 지석묘, 감서리 지석묘, 거산리 지석묘, 용산리 지석묘, 은월리 지석묘, 송산리 칠성바위 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이미 이 지대에 인간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에는 거산리고분군, 신용리고분군, 용산리고분군, 은월리고분군등 유적으로 미루어보아 고자국 또는 소가야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의 유적으로는 거류산성(巨流山城), 신용리유물산포지, 송산리유물산포지 등이 있으며 진여부곡(珍餘部曲), 적진향(積珍鄉)등의 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성현의 관할하에 있었다. 고종32년(1895) 칙령 제98호 읍의 명칭을 고성군이라 개칭하였으며 1914년 전까지는 광일면(光一面)과 광남면(光南面)의 두 개의 면

으로 나누어졌고, 광일면(光一面)은 장대(長大), 하촌(下村), 가리(佳里), 양촌(陽村), 오산(烏山), 산촌(山村), 구현(九賢), 송정(松亭), 용산(龍山), 월치(月峙), 정촌(亭村), 신은(新銀)의 12개 리동을 관할하였다.

광남면은 봉곡(鳳谷), 상연(上蓮), 하연(下蓮), 신리(新里), 용동(龍洞), 연화동(蓮花洞)의 6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서기 1914년 3월 1일자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을 병합할 때 광일면과 광남면을 합쳐 거류산(巨流山)의 이름을 따서 거류면(巨流面)이라 칭하고 당동(塘洞), 신용(新龍), 화당(華塘), 거산(巨山), 가려(佳麗), 송산(松山), 은월(銀月), 용산(龍山)의 8개 리동으로 개편하였다.

서기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6542호로 동해면 감서리가 거류면에 편입되었다.

서기 1984년 8월 22일자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당동리, 신용리, 화당리, 거산리, 가려리, 송산리, 용산리, 은월리, 감서리의 9개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쪽은 당동만바다, 서쪽은 고성읍, 동북쪽은 동해면, 남쪽은 통영시 광도면에 접해 있다. 거류면사무소는 당동3길 5(당동리 75의 6번지)에 자리하고 면적은 36.57km², 농경지 14.4km², 임야 18.3km², 가구수는 2,572호, 농가호수 1,670호, 어가호수 221호, 인구는 5,159명(남자 2,711명, 여자 2,448명)으로 면소재지까지는 군청에서 동쪽으로 11.1km에 위치하고 있다.

면내 사적 및 문화유적지는 유형문화재 제442호 고성송산리승총명록(松山里勝聰明錄), 문화재자료 제90호 거류산성(巨流山城), 신용리 장의사(藏儀寺), 가려리에 가산사(佳山祠), 송산리 산촌(松山里山村)에 경산서원(景山書院), 은월리 은정자(銀亭子), 거산리 지석묘군등이 있고, 화당리 적진포(積珍浦)에는 조선시대 군영지인 남촌진(南村鎭)터가 있고 화당마을 입구에 서낭당 돌탑과 느티나무가 있고 주변에 남촌진의 별장(別將)으로 파견되어 선정을 베풀었다는 선정비(善政碑) 3기가 있다.

남촌진은 이순신장군의 고성 첫 전투지인 적진포였다.

거류면 신용리에는 마동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